

전북자치도 출범... 희망 신호탄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축하 행사... "잘 사는 남원 만들기 최선"

남원시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며 전라북도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1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등 700여명과 출범 기념 축하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 전경기 시장의 장, 이정린 도의회 부의장, 시 의회 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였으며,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삼고자 남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남원형 특례 65건을 발굴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성장경쟁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1조 중 42개조가 남원의 발전방향과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등 700여명과 출범 기념 축하행사가 열린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남원의 특성에 적합한 농생명산업지구·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고령친화산업융합단지 등 지구·단지 지정으로 산업인프라를 구축해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군청 문화강좌실서 출범식 기념 축하 행사... 특례 대응 총력전

특별한 임실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출범하는 가운데 특례 대응에 총력전을 펼친다.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축하 행사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시민 군수, 임실군의회 이상재 의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진행했다.

전라북도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하고, 1월 18일은 전북에 있어 희망 신호탄을 쏘 올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관련하여 육정호 권역 종합관광지 조성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저지중도입을 통한 임실치즈산업 고도화와 반려 산업 육성 등 분야별 특례에 대응한 특화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육정호의 무한 변신... 명품 생태관광지로

임실군은 육정호 붕어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육정호 지리섬(90만㎡) 에코힐링관광랜드 사업(190억원)을 추진한다. 육정호 지리섬 일원에 에코힐링관광정원, 운솔로드(2km) 조성, 자리섬과 수암마을을 연계한 물빛하늘길 조성(610m)으로 현재 개발 중인 육정호 관광지원을 연계하는 전체 수변탐방로 89.3km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코누리 캠퍼스 사업(45억원)을 통해 숙박시설(7,815㎡)과 민간 투자 용지(18,793㎡)를 내년 상반기 분양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케이블카·짚라인 설치 등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육정호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270억원)으로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임실군은 17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축하 행사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요산공원 정비, 운암교 테마광장 조성 및 육정호 캠핑장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수려한 육정호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 1단계 사업인 △육정호 물문화 돌매길 조성(50억원)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짓고, 2단계로 작은 환경부로부터 신규 선정된 △육정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75억원)을 통해 매개설 구간 탐방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부족한 관광객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운암면 소재지에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61억원)과 출렁다리 앞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30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임실군의 숙원사업인 △육정호 수변도로 개설(80억원)을 위해 탐진환 경활용계획을 수립해 육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이 육정호 수변 전체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지중 젓소 도입 통한 임실치즈 명품화

고 지경환 신부님과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된 임실치즈는 1967년 지경환 신부님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 탄생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치즈의 역사

가 되었다.

군은 임실N치즈를 바탕으로 치즈산업을 선도하며, 6차산업의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2023년 12월 국립축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지중 도입을 통해 맛과 품질을 더한 고품질 임실N치즈를 생산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특별법 특례를 연계한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받아, 낙농·유가공 산업에 대한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임실N치즈 위상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견의 본고장 오수, 1500만 반려인의 성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바 있는 오수 의견설화를 토대로 오수를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12월 반려산업을 특화한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217억원)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180억원)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등 오수를 반려인들의 성지로 만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축하 행사... 변화상·향후 계획 설명

순창군이 17일 주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128년의 전통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 출발하는 날인 2024년 1월 18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군 공통행사로, 군민들에게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도시사 출범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과 군민들의 응원 메시지 영상,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전통 창극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상연 등 다채롭고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2시간여 시간 동안 진행됐다.

또한, 군민들에게 용어조차 생소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순창군이 17일 주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가졌다.

위해 출범 배경부터 그동안의 추진사항, 순창군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했다. 특히, 수궁가 중 용궁에 간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창극 뮤지컬 '용궁범이 그리도 좋더냐'는 30여분간 상영되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공공도서관 자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남원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개설·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도서관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내 공공도서관 자료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그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스마트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응형 웹 구현 홈페이지이다.

웹에서 '남원 도서관' 검색 시 관내 도서관 주소, 전화번호 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도서 예약, 대출 연장,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방문 또는 전화로만 신청하는 불편함을 상호대차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제공으로 시민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도

서관 홈페이지 개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사업은 시범운영을 거쳐 1월부터 정식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 시행에 맞춰 회원증 하나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름' 서비스를 위해 관내 작은 도서관에도 무선식별시스템(RFID) 장비를 구축하는 등 읍면 지역민도 특정도서관에 방문해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남원시 도서관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올 상반기 어르신 목욕권 배부

총 1만3518명에 7만9995매

남원시는 2024년 상반기 70세 이상 어르신 총 1만3,518명에게 7만9,995매 목욕권을 배부했다.

올해 상반기 목욕권 대상자는 1954년 6월생까지이다.

특히, 이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배부를 완료했으며, 상반기 목욕권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2019년도에 시작해 연 10매씩 목욕권을 지급해 왔으나,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 추가 지급 요청이 쇄도하면서 목욕협회와 협



약을 통해 2022년부터 연 12매로 확대하고 지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시에 비해 의료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는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등급 '으뜸촌' 운봉 전촌 동편제마을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 선정

농식품부 등급결정제 평가 1~2등급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관광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 수준 등을 높이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급결정제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 남원시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운봉 전촌동편제마을, 보절 추어마을, 이백 요전다슬기마을, 산내 선돌촌마을)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각 마을별로 체험, 음식, 숙박에 대해 1~2등급을 받아 높은 성적을 보였다. 그중에서 운봉 전촌 동편제마을은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되며, 지난 2021년 인월 달오름마을이 으뜸촌으로 선정된 이후 남원시에서는 두 번째 으뜸촌 선정이다.

전국에서는 329개소의 농촌체험휴양

마을 중 31개소가 '으뜸촌'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북에서는 남원 전촌 동편제마을을 포함 6개 마을이 '으뜸촌'으로 선정되었다.

'으뜸촌'으로 선정된 마을에는 등급 결과 유효기간인 3년간 마을 홍보용 소개자료 제작과 온라인매체 홍보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운봉 전촌동편제마을은 지리산 둘레길 2코스가 지나고 있으며, 판소리 동편제의 태동지로, 매년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 축제'가 열리는 소리와 예술이 살아있는 마을이며, 산양농장에서 서의 산양 먹이주기, 산양유 아이스크림 만들기, 지리산 흑돼지 소시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지역농산물 활용한 음식, 그리고 쾌적하고 독특한 멋이 있는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 발급 서비스 무료 지원

순창군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경작지 지역 향상에 나섰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관내 농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발급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양분 함량과 유해 성분 존재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토양 상태를 파악해 맞춤형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해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작물별 맞춤 비료사용 처방서를 활용해 토양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받아들 수 있어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업경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물을 심기 전 퇴비나 토양개량제, 비료 등을 주지 않은 농경지에서 15cm 깊이에서 5~10개 지점을 고르게 선정된 뒤, 총 500g 정도의 흙을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로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읍 출신 조아라씨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순창군은 17일 순창읍 출신 조아라씨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읍에서 자라 현재는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조아라씨는 고향 순창군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 순창에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버지 겸은건설 조상우 대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알게 되어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히 눈길을 끌었다.

조씨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고향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알게 되어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순창군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뜻깊은 고향사랑을 보여주시는 조상우 대표 가족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순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관촌면, 경로당 순회 방문

관촌면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38개소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김명진 면장은 한파에 따른 경로당의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 시설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둘러보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최근 성행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 사례, 보이스피싱 주의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산경로당 김규식 노인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인복지 지원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진 관촌면장은 "청룡의 기운을 받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시길 바라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